

## 광주 스테이크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

지난 2월 11, 12일 양일간 광주 스테이크 전반기 대회가 아시아 지역 회장단인 고마쯔 장로의 감리하에 열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니파이서 31 : 20)를 주제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8여년간 봉사해 온 박 하천 형제가 해임되고 김 제안 형제가 새로운 스테이크장으로 부름받았으며 박 봉규 형제가 새로이 고등평의원으로

지지받았고 1명의 대제사와 5명의 장로가 지지받고 성임되었다.

감리자인 고마쯔 장로는 “저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길 원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길 원할 때는 경전을 읽습니다.”라는 폴 딘 장로의 영감어린 말씀을 인용하면서 경전, 특히 물몬경을 생활화하도록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8년간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박 하천 형제의 노고를 치하하였고 새로 부름받은 김 제안 스테이크장을 도와 더욱 스테이크가 강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앞줄 좌로부터 1보좌 임 종하 형제, 김 제안 스테이크장, 2보좌 박 봉업 형제, 뒷줄 좌로부터 집행서기 이 용주 형제, 서기 김 정기 형제, 보조서기 이 현철 형제

## 동대문 스테이크 대회

교리와 성약 107편 99절을 주제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1989년도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 2월 11(토), 12일(일)에 동대문 스테이크 센타(용두 와드)에서 있었다. 손 승은 스테이크장 감리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신임받을 만한 자가 되기 위한 조건, 자유의지와 개인의 책임, 겸손, 신권 봉사 등 교회 역원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몇가지 필수 자질이 주요 말씀 주제로 다루어졌다.

토요대회에서 조 만구 고등평의원은 신임받을 만한 지도자의 조건으로서 지도자를 지지하고, 지도력을 행사할 기회를 지도자에게 줄 것을 언급했고, 조 태환 스테이크장단 제1보좌는 무려

300개에 달하는 와드 조직에 비추어볼 때 우리 각자는 사도 바울의 권고, 즉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교회)을 세우기 위해 부분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일요대회에서 새로이 스테이크장의 제2보좌로 부름받은 현 임배 형제는 교회의 모든 부름과 마찬가지로 이번 부름이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부름은 아니지만, 부름에 따르는 성약과 책임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했다. 손 승은 스테이크장은 일요대회의 메시지로써 예수께서 산상에서 하신 8복을 따를 것을 제언했고, 8복의 조건을 수행하는 자는 8복의 결과 부분을 축복받을 것임을 확인했다. 그밖에 파머 서울 성전장 부부와 신 호범 서울 선교부장이 초대되어 각각 성전 사업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 말씀했다.



좌로부터 1보좌 조 태환 형제, 손 승은 스테이크장, 2보좌 현 임배 형제

## 대구 스테이크 대회

대구 스테이크는 3월 4, 5 양일간 대구 수성 와드에서 칠십인 장로 정원희의 일원인 에드니 와이 고마쯔 장로가 함께 한 가운데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교리와 성약 75편 11절의 “지치지 않게 항상 기도하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박 원걸 스테이크장은 “인간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어서 사는 존재이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강조했다.

감리자인 고마쯔 장로는 말씀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이룩하기 위해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역설하며 간증을 전했다.

이번 스테이크 대회를 통하여 대구 스테이크에서는 19명의 형제들이 새로이 장로 신권을 성임받았다.

## 원 향희 자매 수석 졸업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원 향희 자매(전남 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일어일문학과)가 1989학년도 전남 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 인문과학대학 수석의 영예를 안고 총장상을 수상하였다. 원 자매는 1981년에 개종한 이래 꾸준히 활동적으로 교회에 참여하였으며 중등부 세미나리, 신학연구원 대학부 과정을 이수하여 영적인 지식을 강화하였고 초등학교 회장, 청년회장단 등의 많은 직분에 봉사하였으며 지난 1986년에는 서울 서 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귀환하였다.



학위 수여식장에서의 원 향희 자매

원 향희 자매는 하나님과 교회에 충실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만한 축복을 얻게 된다는 고귀한 진리를 입증시켜 주었고 말일성도의 충실함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영동 스테이크 대회

1989년도 전반기 영동 스테이크 대회가 김 택우 스테이크장 감리하에 2월 11, 12일 양일간에 걸쳐 영동 와드와 신당 와드에서 열렸다.

“이전에 물문경을 몇번을 읽었던지 상관없이 다시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자신의 가슴과 가정에 주님의 영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라는 핁클리 부대관장의 말씀을 대회 주제로 시작된 토요대회에서 고 원용 장로는 읽을 줄 알아도 읽지 않는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문맹자이므로 오늘저녁, 이 시간부터 물문경을 읽도록 하여 온 지구를 물문경의 홍수로 만들자는 메시지로 영적인

감동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한 “가정 복음 교육을 이용하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함”을 주제로 한 일요대회에서 파머 성전장은 성도들이 자신의 편리, 조건, 환경에 맞는 때에 봉사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염려스러운 문제임을 경고하며 모든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으로 부름 및 봉사에 즉시 임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김 택우 부장은 특히 교회 내에 많은 부름이 있지만 가정 복음 교사의 부름은 가장 중요한 부름임을 역설하였다.

기사 제공: 이 효상 기자

스테이크 대회 광경



## 가장 재미있었던 교회 연극

정 형숙 자매(둔촌 지부)

지난 겨울에는 또 한번의 말일성도 청년 연극제 공연을 볼 수 있었다.

서울 스테이크와 영동 스테이크의 형제 자매들이 참여하여 공연하게 된 아가사 크리스티 원작의 “열 개의 인디언 인형”은 오래간만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대작이었다.

그러나 그런 대작을 공연하기엔 협소한 무대와 빈약한 소품등 모든 것이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공연이었다고 나 자신은 평가하고 싶다. 아마도 그것은 연극에 참여한 형제 자매들의 적극성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객석에서 읽을 수 있었던 관객들의 표정만으로도 이 공연의 평가 여부는 나의 감동과 마찬가지로 오리라고 단언할 수 있겠다.

간간히 들리는 관객들의 탄성과 비명, 거짓을 진실이라는 착각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게 해야하는 연극이라는 한마당 놀이판과 워그레이크 판사의 죽음이 물고 온 범인을 쫓는 수사력의 혼란은 한치 앞의 상상도 허락하지 않는 극의 전개와 전혀 의외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추리극의 조화의 열매였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하나인 살인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교회의 표준에 어긋나지 않고 또 회원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표현할까 하는 걱정은 극중 인물들의 연기력과 작품 속의 무대장치, 소품, 음향과 조명등의 조화로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다.

가끔씩 관객들의 눈에 잡힌 배우들의 실수와 어색한 몸짓에도

불구하고, 워그레이크 판사의 교활함, 블로아 형사의 능청, 에밀리 여사의 도덕으로 포장된 비정, 맥카더 장군의 중후함, 롬바드 대위의 저돌적인 박력, 베라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판단과 자기방어, 마스톤의 어리석은듯한 당돌함, 로저스 부부의 습관적인 차분한 임무 수행, 암스트롱 박사의 소심함등을 연출한 배우들의 연기력은 조금은 프로에 다가선 아마추어였다고 칭찬하고 싶다.

워그레이크 판사의 소름끼치는 웃음소리가 귀에 울려 날마다 다니는 집앞 골목길을 걷기가 무서웠다는 자매가 있고 보면 배우들에 대한 칭찬이 그리 선심에서 나온 것만은 아닐 것이다.

쿵쿵거리는 가슴이 채 진정되기도 전에 공연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슴에 괜스리 느껴지는 허전함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관객이 있을까?

앉아서 구경만 한 관객들의 가슴이 이처럼 허전한데 날마다 밤늦게까지 연습에 정열을 쏟았던 형제 자매들이 느끼는 허탈함의 구멍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비록 허탈함을 느끼게 된다하더라도 이런 기회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

그러한 무대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또한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마련하신 프로그램의 목적을 100퍼센트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보잘 것 없는 한 달란트만이 주어졌다해도 더욱 중요한 것은 열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한 달란트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보기에 초라한 것이라 해도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를 열심히 가꾸고 있는 자녀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여쁜 것일까?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마련하신 지도자에게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린다. 열화와 같은 재공연 요청이 있었으나 연기자 중의 한 형제가 선교사로 부름받는 바람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

주) 지난 1월 27, 28일 양일간 신당 와드 특설 무대에서 말일성도 청년 연극제의 두번째 공연이 있었다.

한 상의 형제의 연출과 조 기성 형제의 기획으로 서울 스테이크, 영동 스테이크 독신 성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가사 크리스티 원작의 “열 개의 인디언 인형”이 공연되었다.

공연을 마치고 교회 직원들과 함께한 출연진들



## 옥스 장로 서울 성전 방문

십이사도 평의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다음의 네 형제에게 인봉의 권세를 부여하기 위해 서울 성전을 방문하였다: 성전장단의 제일보좌인 이 준택 형제, 성전 선교사인 안 희운 형제, 임 인선 형제, 최근에 십이사도의 지역 대표로 부름받은 고 원용 형제.

옥스 장로와 그의 부인인 준 옥스 자매는 성전장단, 성전 선교사, 성전 직원과 만났으며, 성전 부속실에서 열린 모든 의식 봉사자를 위한 특별 모임에서 말씀하였다.

스펜서 제이 파머 성전장은 모인 회중을 환영하고 회원들의 충실함으로 지난 1월과 2월 동안에 집행된 의식수가 괄목할만하게 증가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파머 성전장은 침례, 예비의식, 성임 및 인봉을 포함한 대리 의식은 실로 고무적이었으며, 엔다우먼트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서울 지역의 회원들이 성전을 찾는 충실도는 지역에 따라 다름을 지적하였다.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979년에 하신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성전이 없이는 교회는 발전할 수 없고 한국은 안전할 수 없다.”

옥스 장로는 대리 의식을 집행함에 회원들이 보여준 충실한 태도를 칭찬하였으며, 이는 교회의 모든 이들에게 좋은 모범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서울 성전에서 산자에 대한 의식이 증가해야 한다는 목표를 주었다. 그는 또한 한국의 말일성도들이 이 생애에서만 유효한 결혼을 함으로써 세상의 방법을 따르느니 보다는 주님의 뜻에 따라 성스러운 성전에서 결혼하는 것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옥스 장로는 성도들이 성전에서의 성약과 의식에 충실할 때 가족과 함께 사회악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는 약속을 주었다. 또한 주님의 집에서 가족이 함께 인봉받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였다.

## 말일성도 청소년이 대리침례에 활동적으로 참여함

많은 시온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의무를 한국 서울 성전에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1월과 2월 중에 충실하고 행복에 찬 많은 말일성도 청소년들이 전국 각처에서 와서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를 베풀었다. 이 기간에 성전을 방문한 와드/지부는 다음과 같다.

와드/지부	스테이크	날짜
진주	부산 서	1월 11일
	전주	1월 12일
태백	강릉지방부	1월 14일
	대구	1월 18일
	부산 서/강릉	1월 20일
	부산 서	1월 21일
	광주	1월 25일
주문진	주문진/청주	1월 28일
제천/영월	원주지방부	1월 31일
	서울 동	2월 2일
	서울 동대문	2월 9일
		2월 16일
	서울 서	2월 23일
	서울 동	2월 24일
	성전	2월 28일

매번마다 감독단이나 지부장단 혹은 성전 사업의 촉진을 위해 스테이크의 대표로 지명받은 고등평의원이 함께 하였다. 이들중 특별히 111명의 청주 스테이크와 주문진 지부 회원들은 하루 동안에 891명의 침례를 행하였고, 82명의 부산 서 스테이크와 강릉 지방부의 회원들은 673명을 침례하였다. 1월중에는 서울 선교부 산하 지부 청소년들의 참여가 많았다.

## 결혼

1989년 1월과 2월에 걸쳐 다음 회원들이 한국 서울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였다.

신랑	신부	성전결혼일	인봉자
이 신영(릭스대학 22와드)	정 선미(광주/총장)	1월 2일	박 병규
존 리차드 올리버(헌츠빌 제3와드)	박 경숙(부산 서/창원)	1월 13일	박 남수
박 진수(전주/중앙)	박 정옥(전주/중앙)	1월 27일	박 병규
정 형일(서울 동/미아)	김 석화(서울 북/신촌)	2월 18일	박 남수
김 원석(청주/유천)	허 정옥(대구/수성)	2월 28일	민 덕규